上層에 따라 一段씩 減少되었으며 落水面의 層段 또한 第一層의 九段에서 七層의 三段에 이르기까지 一段씩 減少되었다。各層屋蓋의 四隅에는 風磬을 달았던 구멍이 엿보이며 곳에 따라 殘存된 것도 注目되었다。相輪은 靑銅製로서 露盤으로부터 높이 一七〇㎝ 擦柱에는 花瓣形을 둘린 寶輪五段과 寶蓋 寶珠가 남아 있어 거의 完全한 모습을 이루고 있다。또 擦柱로부터 四層屋蓋에 이르기까지 鐵鎖를 걸어놓은 것은 法住寺 捌相殿 相輪部와도 類似하다。事蹟記에 依하면 創建當時 이 塔을 建立했다고 하나 그 後「乾隆四十三年(一七七八A·D·) 戊戌仲春 水瑪瑙寶塔 重修事蹟」및「大淸同治十三年(一八七四A·D·) 甲戌五月水瑪瑙寶塔重修誌」또는 天倚山淨岩寺碑名(寂滅寶宮右便에 建立되어 있음)의「乾隆三十六年庚寅(一七七〇A、D) 四月二十日始役 辛卯(一七七一A·D·) 四月二十八日終役」等의 記錄으로 보아 이 塔은 數次 重修를 거듭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基壇에서 上記와 같이 上部三層이 下部와 相異함도 基壇部의 變更으로 推定되었다。南面 塔前에는 供養石이 있는데(橫 五五㎝、縱 四〇㎝、高 二〇㎝) 上面 中央의 蓮花紋 側面의 眼象 等이 高麗時代의 手法으로 생각 되었다。寺域內에서 蓮花臺石 一個와 破損된 光背一石이 發見되었는데 後者의 火炎紋과 中央의 重瓣蓮花紋으로 보아 이것 또한 高麗時代의 作品으로 推定되었다。其他 境內에 瓦片이 無數하였으나 有紋瓦當은 發見치 못하였다。

塔材가 軟質이어서 破損된 部分이 많고 特히 塔의 位置가 傾斜地이며 暴雨의 被害도 있어서 修理保存이 時急하며 아울러 現存하는 造形 遺物 其他 事蹟 等에 對한 調査가 期待되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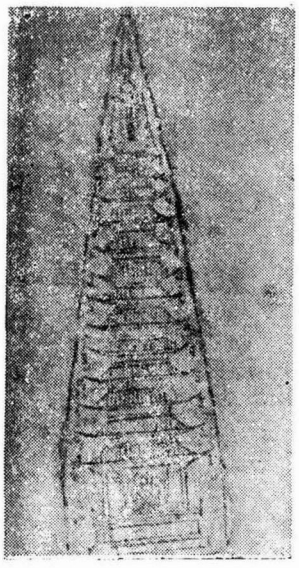
〔附〕 淨岩寺는 江原道 旌善郡 東面 古汗里에 있는 바 中央線 첫車를 利用 다음 兩路中 擇一하면 當日로 到着할 수 있다。

法華寺藏 三角塔印에 대하여

黃 壽 永

一九五七年 八月 慶南道廳이 實施한 文化財調査에 參加하였던 筆者는 智異山 法華寺(咸陽郡 休川面)에 古鐘① 古佛②이 傳來한다는 말을 듣고 同寺를 訪問한 바 있었는데 此品은 그 當時 着眼한 것이다。

三角形의 銅板인 바 下部만은 矩形을 이루고 있다。表面에는 線刻된 高層塔 一基가 全面을 차지하였고 裏面의 下半部中央에는 작은 三山形의 손잡이가 縱으로 달려 있을 뿐 其他의 特記할 點은 없고 表裏 모두 烏銅色을 보이고 있어 傳世品으로 推定되었다。塔은 十三層 方形木塔을 圖案化한 것인 바 各部樣式은 當代에 流行하던 金屬製工藝塔③보다도 더욱 略化되었다。最下의 基壇은 佛壇과 恰似하여 蓮花 眼象 欄楯 等이 表現되었다。塔身은 모두 三間을 보이는 바 初層에 있어서 넓은 中央間에는 如來像一軀가 頭身光과 蓮花座를 具備하고 結伽趺座하였으며 左右間 上下에는 橫架木이 보인다。四注式屋蓋의 檐裏에는 枓栱을 表現하지 않고 오직 第一層에 있어서 三段의 平行받침을 보일 뿐이며 그 以上에서는 이것조차 省略하였다。屋蓋轉角은 反曲되고 그 尖端에는 鈴鐸代身에 各各 梵字를 새겼다。瓦列은 平行되었으며 塔身 밑에는 一段의 받침으로서 欄干을 略



示하였다。各層의 遞減率은 塔身에 있어서 二層以上이 크며 屋蓋部는 작아서 安定感을 보인다。頂上에는 相輪이 細部를 보이고 있는데 露盤은 그 위의 覆鉢이 커서 작게 보이며 그 隅角에는 花瓣裝飾이 달려 있고 擦竿에는 七輪이 表示되었으며 그 위에 仰覆花瓣紋의 寶蓋形이 있고 最頂에는 龍車 寶珠와 鉾形尖端이 있다。다시 寶蓋에서 最上層 屋蓋의 隅棟끝에 連結된 左右二條의 索上에는 鈴鐸과 舌形까지 表示되었다。全體에 있어 高峻한 形態를 보이는 것은 多層이라는 것 以外에 三角形의 細長함에서 온 듯하다。裏面 下部에는 鈕를 中心으로 그 右側에 二行 左端에 一行의 銘文이 縱書陰刻 되었는데 小楷字로서 다음과 같다。④

羅州戶長子迫鄕諧詞昌直畀圭甫
三咏硃深道人道雲肯同心鑄成年荅
壬寅一月一日鑄成

此品은 三角塔印이라고 傳稱實用되어오던 것인 바 그 由來에 關하여서는「兩說이 있어 一은 羅末 崔致遠 同時 智異山 馬跡寺에 馬跡道士가 있어 信徒中心의「어음」으로 使用한 것이라 하며 他一은 嚴川寺 戒壇法堂에 比丘戒를 設하고 戒牒授與時에 戒牒에 捺印하여 受戒의 信憑으로 使用되었다 하는 바 모두 羅代遺物이라고 傳한다」⑤ 그러나 塔樣式이나 銘文으로 미루어 高麗下代인 西紀十三世紀頃으로 推定할 수 있다。이같은 高古한 金屬製 塔印은 現存하는 稀貴한 遺例로서 同代의 金屬製 工藝小塔과 더불어 注目할만 하다。全長 三四·五㎝ 下幅 一〇㎝

註 ①「雍正十三年乙卯四月日 山陰王山寺中鍾鍾成 化主祐證 緣化秩…」(鍾銘) 高 六六㎝

② 法堂에는 木造阿彌陀佛坐像이 유리箱子內에 安置되어 있는 바 그 年代에 關한 記錄은 다음과 같다。
「乾隆十九年甲戌四月十五日敬造彌陀聖像于湖南玉果縣聖德山觀音寺五月五日奉安于嶺右咸陽府嚴泉寺法華庵」坐高六六·五㎝ 膝幅四四·五㎝

③ 朝鮮美術大觀 第二部彫鑄圖版十一에 보이는 銅製十三層工藝塔이 이 樣式과 類似하다。

④ 此品은 同行이었던 釜山大丁仲煥敎授에 의하여 再調되었는 바 發表를 期待하는 바이다。

⑤ 同寺住持의 回報에서 引用하였는데 調査便宜를 마련하여주신 鄭寅燮敎育監과 休川國民學校長 鄭淳龍氏와 더불어 謝意를 表하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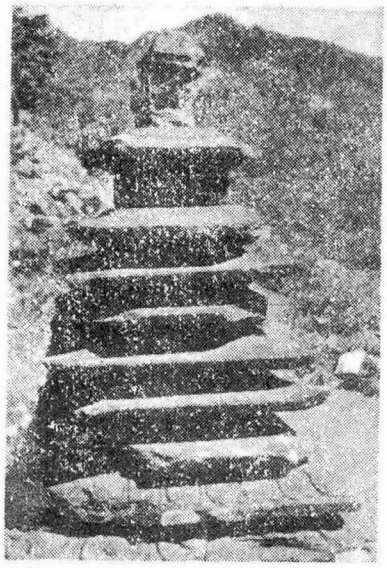
靈山 法華庵의 靑石塔

金 正 基

慶南 昌寧郡 靈山面 九溪里에 있는 法華庵은 東北面境에 솟은 靈鷲山의 南쪽 비탈에 있는 庵子이며 元來는 山頂 가까이 位置하였던 것이 三·四年前 中腹으로 移建되었다 한다。

이 寺刹은 일찍부터 廢 寶林寺에 屬하였다고 傳하며 現在 볼만한 佛像·佛具는 없고 本尊으로는 李朝末로 보이는 高 約四五㎝의 觀音菩薩座像을 南向하는 小佛堂에 奉安하고 있을 뿐이다。

이 法堂 西南方에는 보기 드문 小石塔이 混凝土로 만들른 臺石上에 놓여 있어 瓦塔이라고 俗稱되고 있다。이 石塔은 元來의 절에 있었던 것을 移置한 것이나 現住持의 말에 의하면 그곳에도 他處에서 옮겨져 놓인 것이라고 한다。塔은 現在 基壇의 上下 各一石과 屋蓋石七、塔身石一만 남기고 露盤을 代身하여 風化磨滅한 石質이 다른 自然石이 놓여 있다。



石材는 烏石이라고 불리는 黑色 粘板岩이며 基壇은 佛壇과 類似한 形態였다고 생각되며 下石은 重瓣의 蓮花文、